

1 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미국-뉴욕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천불)

구 분	11월 당월		1~11월 누계	
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
농림축수산물 전체	10,886,766	-	121,285,285	5%
소 비 재	5,273,520	5%	56,382,846	5%
중 간 재	1,851,042	-2%	22,703,047	17%
수 산 물	1,384,303	-6%	15,037,415	1%
벌크농산물	1,342,850	-20%	15,771,970	-11%
임 산 물	1,035,050	18%	11,390,007	15%

자료원 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1월 기준 자료)

※ 소비재 (야채, 과일, 와인/맥주, 스낵류, 가공 야채과일, 육류, 견과류, 커피, 낙농제품, 향신료, 화훼류 등)
 중간재 (가축, 식용기름, 설탕류, 종자류 등)
 수산물 (어류, 갑각류, 해조류 등)
 벌크 농산물 (고무, 코코아, 커피 원료, 담배, 차류, 곡류 등)
 임산물 (목재류, 펄프 제품 등)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누적금액, 단위: 천불)

품목	작년 ('11.11)	금년 ('12.11)	증감%	1위		2위		3위		한국산 금액
			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국가	금액	
배	89,206	66,669	-25%	아르헨티나	28,097	한국	18,815	칠레	12,327	18,815
신선버섯	100,715	115,729	15%	캐나다	99,215	멕시코	7,751	중국	5,510	2,179
인삼(엑기스)	20,082	22,216	11%	프랑스	10,601	중국	5,240	한국	3,735	3,735
인삼뿌리(재배)	19,483	29,683	52%	중국	17,757	홍콩	5,109	캐나다	3,438	1,613
스낵류	5,930,835	6,257,753	6%	캐나다	2,830,389	멕시코	1,403,608	독일	273,870	28,454
가공과일채소	5,800,321	6,190,966	7%	캐나다	1,220,069	멕시코	1,065,567	중국	907,989	48,930
낙농제품	1,259,119	1,478,096	17%	뉴질랜드	621,373	캐나다	119,717	독일	87,563	9,572
과채류주스	1,789,124	1,754,683	-2%	중국	577,780	브라질	270,787	아르헨티나	218,468	1,780
견과류	1,599,529	1,596,818	-	베트남	369,205	인도	264,386	멕시코	263,424	1,718
와인/맥주	7,832,169	7,832,169	5%	멕시코	1,723,459	이태리	1,410,357	프랑스	1,269,392	6,204
화훼류	1,424,060	1,504,534	6%	콜롬비아	599,156	캐나다	268,669	네덜란드	170,023	1,843
커피(인스턴트)	1,080,254	1,100,734	2%	캐나다	368,575	멕시코	135,084	컬럼비아	134,692	6,687
향신료	1,152,398	1,214,343	5%	인도	238,923	인도네시아	210,136	중국	107,368	2,833
차류(허브)	588,488	615,017	5%	중국	125,606	캐나다	102,907	아르헨티나	74,667	7,091
종자류	863,639	1,284,861	49%	칠레	336,814	캐나다	246,578	아르헨티나	73,012	5,031

※자료원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1월 기준 자료)

※미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캐나다(26,622,229), 멕시코(15,724,236), 중국(9,206,786) 순이며, 일본(804,776) 27위, 한국(447,209)로 38위순으로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음

※ 미국내 한국산 농식품 수입품 중 가공과일채소(45%), 신선버섯(37%), 종자류(23%), 커피(인스턴트포함, 19%)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나 낙농제품(-19%), 견과류(-8%), 향신료(-8%) 등은 감소했음

○ 한국산 수입 증감내용

- 2012년 11월 한국산 농림 수산물 전체 수입액은 44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8% 상승
 - 소비재 농축산물: 전년도 대비 264백만불에서 302백만불로 14% 증가
 - 수산물 : 전년도 대비 110백만불에서 97백만불로 12% 감소
 - 중간재 농축산물 : 전년도 대비 30백만불에서 36백만불로 22% 증가
 - 벌크 농산물 : 전년도 대비 6.4백만불에서 7.5백만불로 17% 증가
 - 임산물 : 전년도 대비 2.7백불에서 3.3백불로 19% 증가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 현안

- 1월 4일, 식품안전현대화법 2개 주요 법안 발표

CGMP(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)의 개정

- 모든 식품위생관리규정의 근본인 CGMP(미국 FDA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)가 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
- 제안된 요구 사항
 - ① 식품안전계획서 작성: 생산부터 저장 및 판매를 위한 포장 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한 계획서 요구
 - ② 위해요소 분석: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해 요소 분석 요구
 - ③ 위험에 대한 예방 통제: 분석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통제 시스템 요구
 - ④ 모니터링: 공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
 - ⑤ 시정조치 결과: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요구
 - ⑥ 검증: 제품 테스트, 환경 테스트 및 공급업체 인증 사항 요구
 - ⑦ 관련 기록: 생산부터 저장 및 판매를 위한 포장 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한 기록 요구

소비용 농산물의 성장, 수확, 포장 및 보관에 관한 개정

-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대장균과 특정한 미생물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.

■ 제안된 요구 사항

- ① 노동자 교육 및 건강과 위생 기준
- ②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
- ③ 생물학적 토양 상태의 기준
- ④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기준
- ⑤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장비, 도구 및 건축물에 대한 기준
- ⑥ 새싹에 대한 기준

공청(Public Comment Process) 기간 진행

- 미국 식품 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변동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
- 또한 제안 규정이 공개된 1월 4일부터 공청(Public Comment Process)이 진행되고 있으며 120일 동안 공개된 이후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법안에 적용될 예정임

□ 특정품목 시장동향 : 과채류 시장(Fruit and Vegetables)

○ 현황

미농무부 경제연구국(ERS)에 따르면 지난 90-92년과 04-06년 사이에 과채류 수입이 27억불에서 79억불까지 급증했으며 미국내 농산물 수입 비중도 11.5%에서 13.3%까지 증가했다. 미국의 신선농산물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신선농산물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.

○ 미국 신선채소 수입 상위 10 품목

(단위: 백만불)

	2011	2012	전년대비 증감률
토마토	2,137	1,868	-13%
후추류(피망)	933	1,069	15%
오이	386	492	27%
아스파라거스	435	440	+1%
양파	290	281	-3%
호박	226	264	17%
상추	169	165	-2%
마늘	104	144	34%
감자	176	133	-24%
브러콜리	138	123	-11%

*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(FAS)

- 미국의 12년도 신선채소류 수입액은 11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58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. 이중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 신선채소류 총수입액 중 41억달러를 차지하며 70%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음
- 감자는 수입 상위 품목중 가장 급격한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입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미국내 매출 또한 4% 감소하였음
- 토마토의 미국내 시장규모가 2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가는 8.9% 하락했으며 매출 또한 7.2%가 떨어졌음
- The Packer's의 신선 식품 트렌드에 따르면 마늘은 아보카도와 파인애플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아이템으로 갈락을 지목했으며 지난해 수입 품목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

○ 미국 신선과일 수입 상위 10 품목

(단위: 백만불)

	2011	2012	전년대비 증감률
바나나	1,983	2,084	+5%
베리류	1,022	1,176	+15%
포도	1,034	1,044	+1%
아보카도	912	860	-6%
파인애플	494	536	+9%
시트라스(감귤)	515	502	-3%
딸기류	365	497	+36%
멜론	474	470	-1%
망고	343	376	+10%
사과	133	168	+23%

*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(FAS)

- 베리류(딸기 제외) 수입액이 전년대비 15% 증가(양식 블루베리는 11%, 라즈베리는 36% 증가) 했으며 12년 핫 아이템 20 품목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되었음
- 베리류는 패키지 사이즈(4, 6, 8oz 혹은 대용량)를 다양하게 구성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음
- 딸기 수입(신선 및 냉동)은 총 4억9천만달러치가 수입되었으며 11년 대비 36% 증가했음
- 사과 산지로 대표되는 미국에 수입액이 11년 대비 23% 가량 증가했으며 미국내 평균 가격이 7.3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시장은 2.2% 확대되었음
- 일반적으로 신선과일류는 소비자들에게 스낵이라는 인식이 있어 보통 채소류에 비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임